

광주·전남 고3 무상교육 300억 '기로'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키로 한 가운데 광주·전남 수혜 대상자가 3만여명에 이르고 지원금도 300억원에 육박해 관련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정책의 하나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1차적으로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2020년 고2, 3학년, 2021년에는 전체 고등학생으로 확대해 전면적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다.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부 "2학기 조기 실행"...예산·법 개정 관건
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인상해야"

나 차상위 계층 자녀로만 한정된 것을,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2학기 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에서는 고3 1만7943명, 전남에서는 1만8885명이 혜택을 입게 되고, 전체 지원금(집계)은 광주가 154억원, 전남이 140억원으로 광주와 전남 통틀어 3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하반기만 고려한 것으로 연간 수혜액으로 환산하면 광주·전남 합쳐 588억원에 이른다.

고3 학생 1인당 광주는 연간 171만원, 전남은 148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현재 수업료는 광주가 134만8800원, 전남은 시·군위 115만2000원, 군 단위 87만2050원을 내고 있고, 1인당 평균 학교운영지원비는 광주 28만4400원, 전남 23만1000원, 평균 교과서비는 광주가 8만4000원, 전남이 10만원 수준이다.

2017년 말 교육부가 학부모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무상 교육 여론조사에서 86.6%, 10명 중 9명꼴로 찬성한 점도 정책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긴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

만 2학기 시행을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 재정 당국과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할 상황이다.

내국세 종액에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20.46%에서 21.33%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작업도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4월 안에는 미무리해야 하지만, "포퓰리즘 아니냐"는 여당 일각의 반발로 관련 법안이 제때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범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업무의 분산에 따른 총괄부서 신설 필요성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조기 실행을 위해서라도 상반기 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심의 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부를 인상이 최선책"이라고 제안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 40%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노후 시설 보수 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에 시·도교육청이 적극 협조했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부채상환 등 자체 재원으로 국가 부담을 감당해온 노력을 감안해서라도 교부를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호 기자



광주 전일빌딩 기공식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간직한 광주 전일빌딩 리모델링 기공식이 18일 전일빌딩 옥상에서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정희국 광주시교육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념식을 하고 있다.

신민호 도의원 '5·18 망언' 3인방 제명 촉구

"의미 훼손·허위사실 유포"

전남도의회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폄훼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와 함께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최근 전남도의회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신민호 의원은 '민주주의의 원동

력이자 세계사에도 유례가 없는 거룩한 민중항쟁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5·18 공정회'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하며 결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청년 일자리 사업 모집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행기관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역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 2개 분야에서 실시된다.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은 도내 비영리법인과 단체,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행기관과 모집된 수행기관에 근무할 청년근로자 300명을 각각 모집한다.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은 도내 농·수산 유통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농·수·축협과 로컬푸드 매장 등 지역별 유통 사업장에서 근무할 총 76명의 근로자를 선발한다.

기타 모집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 청년 내일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력양성팀(061-339-6984, 69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 인 설립	■ 기 장 대 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현지신청
■ 기 업 진 단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062-603-1060 FAX: 062-603-1062
H.P: 011-641-6152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측량 >> 토 목 설 계 >> 도 시 계 획
토목공사>> 창업상담>>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급여체계 정비사
- ▶ 4대보험 무료대행
- ▶ 산재업 무대리
- ▶ 징계(해고)자문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동구, 인문도시 조성 위한 인문대학 운영

광주 동구가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 3월부터 시작하는 '동구 인문대학' 수강생을 이번 달 20일부터 3월말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구는 역사·철학·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했던 '인문학교실'을 올해부터 인문대학으로 통합해 ▲인문학 강좌 ▲인문자산 프로그램 ▲리빙 랩 프로젝트 등으로 확대·운영한다.

인문대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3월말까지 동구 누리집 (www.dongu.kr)과 구정홍보 앱 '두드림'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안내된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서구, 한의약 중풍예방교실 회원 모집

광주 서구가 65세 이상 지역주민의 중풍 예방·관리를 위해 한의약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며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된 인원은 3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중풍예방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저렴식이 교육과 전문강사를 통한 기공체조, 건강체조, 한자공예, 종이접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인식도 변화 설문, 건강·체력측정을 실시하여 건강상태 확인 및 건강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남구,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광주 남구는 18일 "농업인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경제적·지리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 가정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농촌과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연간소득 4,000만원 미만의 농업인(1자녀 기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거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자녀가 지원을 받고 있거나 교육청 및 학교에서 학자금 면제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북구, 교복 물려주는 2019 교복 나눔 장터 연다

광주 북구가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복 나눔 장터를 연다.

북구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2019 교복 나눔 장터'를 개최한다."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위해 북구는 관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교복·체육복·책가방 등을 북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기증받았다.

기증받은 교복·체육복·책가방 등 물품은 행사 당일 셔츠·블라우스·바지·치마·조끼는 2천원, 책가방·실내화는 3천원, 쟈켓은 5천원에 판매한다.

광산구 장덕·신가도서관 1관1단 운영기관 선정

광주 광산구 장덕·신가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 문화진흥원 주관 '2019년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1단 운영기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문화부의 이번 1관1단 공모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공간 활용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재능 있는 시민이 주도하는 커뮤니티형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문광부 지원을 받는 광산구 두 도서관은 창조적 공간 조성, 시민 문화예술 커뮤니티 형성 등을 추진할 계획.

특히 장덕도서관은 어린이들이 국단을 만들어 뮤지컬을 준비·공연하는 '함께하는 어린이 뮤지컬아이끼'를, 신가도서관은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일상의 예술' 프랑스 자수를 수놓다'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형택 기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